

'내 맘대로' 옥상 영업에 인근 주민 피해

사생활 침해·악취·소음 등 불만 가중 지자체, 불법사실 알고도 단속은 뒷짐



불법 옥상영업을 하고있는 동구 한 레스토랑, 밝은조명 옆에서 손님들이 저녁 식사를 즐기고있다.

이처럼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지만 동구청 측은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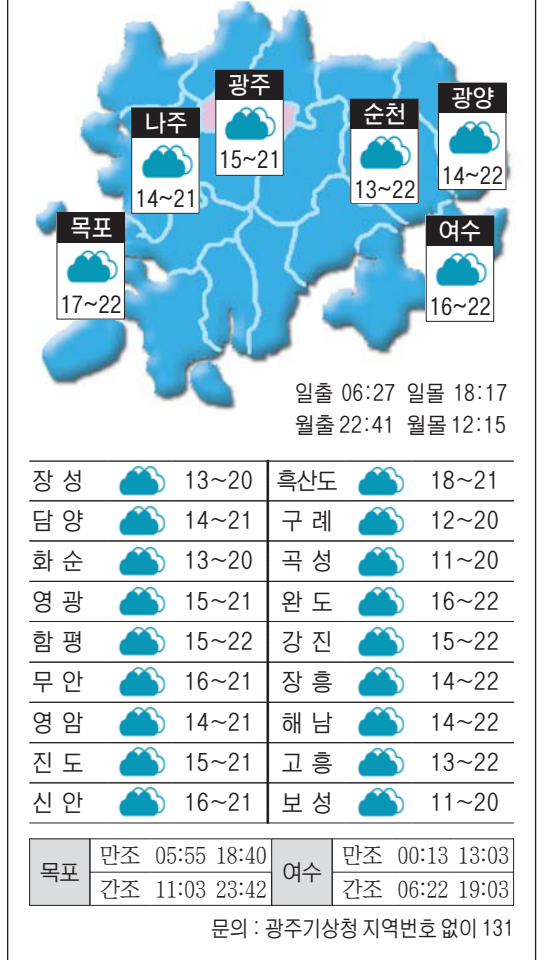
구청 관계자는 "옥상 또는 테라스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해 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이다. 최근 유행하는 루프톱 영업소들은 대부분 불법이다"며 "작년부터 단속을 시작했고,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 현장에 나가고 있다. 시정 조치를 해도 며칠 후면 다시 영업을 개시해 전혀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광주시 동구의회는 동명동 일대에 옥외영업을 허용해달라는 업주들 민원에 소음과 악취, 인근 주민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2년 12월 '식품위생법'을 개정하고 지자체장 재량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운영을 가능케 했다.

/송수영 수습기자

오늘의 날씨



현장출동 1050

'우후죽순' 불법 루프톱 상가

최근 광주 동구를 중심으로 옥상에서 식음료를 판매하는 불법 루프톱 상가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인근 주민들이 소음공해·사생활 침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명동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한 루프톱 카페. 4층짜리 건물을 모두 카페 겸 레스토랑으로 영업 중인 이곳은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탁 트인 전망을 자랑하는 4층 옥상은 식사와 음료를 즐기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이용객들은 1층에서 포장된 음식을 들고 그늘 천막과 테이블이 설치된 4층 옥상으로 이동해 식사와 다양한 음료를 즐기는 모습이 한 눈에 들어왔다. 그러나 사방이 탁 트인 탓에 주변 주택가와 상가 내부 모습이 비춰졌다. 약 4m 가량 떨어진 옆 건물 안의 사람이 지나가는 것이 보일 정도로 가까웠다. 밤이 되자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저녁 8시께 날이 어두워지자 일부 루프톱 업소들은 주택가임을 잊은 듯 대형스피커로 노래를 틀고 형형색색의 조명을 켜 멀리서 지나가는 시민들의 시선을 끌어들였다. 새벽까지 이어지는 영업에 인근 주민들은 밤마다 제대로 잠을 설치한다고 하소연했다.

동명동에 거주하는 박 모씨(23·여)는 "인근에 주택·빌라 등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 많다. 그런데 사방이 트인 루프톱 업소들이 늘면서 밤에 잠들기가 힘들어졌다"며 "큰 노랫소리가 찌렁찌렁 울리는 것은 물론이고, 조명까지 환하게 비추니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편의점 위장취업 현금훔친 20대 '징역 1년'

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위장취업한 뒤 현금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전 4시께 자신이 일하던 광주 모 편의점 금고에 있던 현금 50만원을 꺼내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같은 날 편의점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점주 B씨의 현금 60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10월 1일 광주 한 지역 C씨의 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취업한 뒤 카운터에 있던 현금 141만원을, 같은 달 7일 같은 방법으로 D씨의 편의점에서 현금 114만원을 훔친 혐의 등도 받았다. 김 판사는 "애초 범행할 목적으로 편의점에 취업하는 등 범행의 수법과 내용이 불량하다"며 "다만, 수감생활을 통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나라 기자



가을철 황금 들녘 10월의 마지막 휴일인 지난달 30일 오전 수확의 계절을 맞아 높푸른 하늘 아래 누런 황금빛으로 변한 영광군 백수읍 구수리의 풍요로운 들녘을 한 사진가가 카메라에 담고 있다. /김태규 기자

광주 복지시설 아동학대 파문 확산

통제·관리 위해 정신병원 강제입원...경찰 수사

광주 한 아동 양육·복지시설에서 학대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지역 모 아동 양육·복지시설 원장과 대표이사 등 9명이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학대했다는 고발장을 접수받고 수사에 나섰다

했다. 광주 YWCA가 운영하는 이 시설 원장은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청소년들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거나 입원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설 원장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정신병원 입원, 강제 퇴소 등을 명목으로 아동·청소년들에게 인권침해성 발언과 폭언을 수차례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시설생활 규정에 '일시기가 조치'를 징계방법으로 명시해 놓고 학교에 가지 않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아동에 대해 동의없이 원 가정으로 일정기간 돌려보내는 등 위협을 주며 통제하는 방식을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이후 '포행장애' 등을 이유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이 시설 아동은 5명으로 알려졌다. 인권위원회는 원장을 중징계 처분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경찰은 이 시설 관계자들을 상대로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항이 있는지 살핀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나라 기자

"5·18 진상규명 계엄군 성폭력 포함해야" 광주서 학술 세미나... "전담 소위원회 뒤야"

5·18기념재단은 지난달 28일 광주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5·18과 여성 성폭력'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김영필 국회고성연구원 교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성폭력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했다"며 "계엄군의 성폭력 사건을 법률 개정을 통해 구체화할 수 없다면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차원에서 이를 주요 안건으로 다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위는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면서 "조사위에 여야 1명 이상씩 여성위원을 추천, 복수의 여성위원을 뒤야 한다"고 요구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희승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는 "성폭력 등 여성 인권유린 사건은 군부대의 작전 또는 이동 중에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당시 부대별 주둔지역, 이동경로, 작전상황을 파악해 발생장소와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임태경 민족문제연구소 이사는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영원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투(Me Too)' 운동과 함께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과 군 수사관에게 성폭행이나 성고문을 당한 여성의 증언과 제보가 잇따르면서 진상규명 요구 목소리가 높아졌고,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 무소속 손금주 의원 등이 이를 반영한 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종찬 기자

2018년도 신규협력업체 모집

골드클래스(주)에서는 경쟁력 있는 전문건설업체를 발굴코자 협력사 신규모집을 실시하오니 등록을 희망하는 회사는 아래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등록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모집분야

가. 모집부문

-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해당 전문건설업체
- 2) 건축, 토목, 조경, 기전, 자재 등(첨부파일 참조)

나. 자격조건

-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등록 또는 면허를 취득한 업체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기준에 있지 아니한 업체
- 2) 신용등급 B, 현금흐름등급 B 이상(이크레더블 외 신용평가 전문업체 동일등급 가능)
- 3) '17년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40% 이내(자재업체 제외)
- 4) 건설업 영업기간 3년 이상

2. 등록기간 및 세부항목

- 가. 등록기간 : 연중상시
나. 제출서류 : <http://www.goldclass.co.kr> (팝업창 확인)

3. 접수처

- 가. E-mail 접수 : iomeg2@hanmail.net(외주) didinii@naver.com(자체)
나. 전화 : 070-4343-6350(외주-조달팀 장승권주임) 070-4343-6320(자체-조달팀 강신애과장)

2018년 신입 및 경력직 수시모집

1. 신입 및 경력직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모집구분	지역	인원	지원/우대사항
공사관리팀	건축(공사,공무)	경력	00명 - 공동주택(아파트)/주상복합/오피스텔 - 시공업무 경력 유경험자 - 모집부문 관련 자격증 소지자 (신입:필수) - 초대졸이상 졸업자
	안전관리	신입	
	품질관리	경력	
고객지원팀	설비	의왕	0명 - 공동주택(아파트) A/S관리 경력자
	현장하차 관리직	경력	

2. 전형절차 : 서류전형→면접진행→최종합격 및 입사
3.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기술인협회 발행분)
4. 접수방법 및 기간
-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 (lim9499@hanmail.net)
- 접수기간 : 채용시 마감
5. 문의사항 : 총무업무팀 062-233-3999 (내선102)